



“작은 이들을 위한 하늘나라”

오늘 우리는 작은 이들을 “위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스스로없이 폭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충실한 토라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희생 제사를 통해 벌을 피하고 복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웃과 나’를 ‘둘이 아닌 한 몸’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사명을 여기에 집중합니다. 이스라엘 해방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올바른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 기득권이 추구하는 율법주의에 반해, 사회의 소수자를 하늘나라의 수혜자로 선포합니다. 당시의 신앙관을 뒤집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스바 3,12), ‘어리석고’, ‘약하며’, ‘비천하고’, ‘천대받으며’, 그저 ‘없는 것’(1코린 1,27-28)이 당신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늘나라의 수혜자인 ‘작고, 낮은 이’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마태 5,13-16)이 되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은 ‘오로지 희생제물을 바쳐 율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을 스승으로 따르는 제자들의 의로움은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자비’는 ‘이웃과 함께 그 결핍도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입니다. 수없이 많은 결함과 결핍이 많은 우리 역시 하느님 앞에서 ‘작고, 낮은’ 자세로 하늘나라의 진실한 선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복음을 선포하다 돌아가신 선교사들이 18분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자 노력했었던 이들과 이들의 치열했던 ‘삶의 자리’에 대한 원조가 지속되어, 이들의 노고와 희생이 퇴색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까. ‘작은 이들을 위한 하늘나라’를 건설합시다!



김중훈 엠마누엘 신부 | 반송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스바 2,3; 3,12-13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 2 독 서

1코린 1,26-31

복 음

마태 5,1-12ㄴ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함께 행동합시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전쟁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겪으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의 영향 등으로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더 극심한 식량 위기와 에너지 부족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1코린 12,26)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들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열린 형제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징표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서 의료진들의 헌신과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한 많은 이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비와 나눔을 실천한 마음 따뜻한 이들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자 빈곤 국가에 긴급 식량,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많은 선의의 교우분들이 귀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긴급구호 특별 모금”을 펼치며, 교우들에게 관심과 기도, 후원을 요청하였고, 국경을 초월한 사랑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열린 형제애는 물리적 근접성을 뛰어넘어 출생지나 거주지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모든 형제들, 1항)이라 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처럼 많은 이가 열린 형제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함께 행동합시다.

국제 카리타스는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2021년 12월부터 3년 동안 162개 카리타스 회원기구들과 “우리 함께”(Together We)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 주교 시노드 개막연설에서 ‘함께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고 촉구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와 행동을 통해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과 우리 공동의 집이 가진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행동하면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행동합시다.

해외 원조 주일 2023.1.29.
세계에 전하는 한국 교회의 사랑

우리 함께
TOGETHER WE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함께 행동합시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한국 가톨릭 교회의 공식 해외 원조 기구입니다.

주요 해외 원조 사업

식량 위기 대응	기후 위기 대응	난민 위기 대응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농업개발과 식량 안정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긴급 식량, 식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난민들에게 식량, 주거, 의료, 교육, 생계 회복 사업을 지원합니다.

Caritas Korea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후원문의 02)2279-9204 | 홈페이지 www.caritas.or.kr

2023년 1월 29일 해외 원조 주일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 정신철 주교

토끼해의 소망

황정식 베드로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계묘년癸卯年 올해는 토끼의 해이다.

토끼는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동물이다. 사람들은 귀여운 자녀를 일컬어 토끼 같은 내 새끼라고들 한다.

옛적부터 토끼에 대한 재미있고 호의적인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일테면 밝은 달 표면에 아스라이 검게 보이는 형상을 가리켜 토끼의 암컷과 수컷이 알콩달콩 방아를 찌는 거라고 전래되어 왔었다. 과학적으로 터무니 없는 거지만 그것은 민속 동화적인 이미지로 우리 조상들의 정서에서 비롯된 거라 하겠다. 하물며 우리 교회에서도 달걀과 더불어 토끼를 부활의 상징이라고도 한다. 고로 서구권에서는 부활절에 달걀과 함께 토끼 모양의 과자와 빵을 만들어 나눠주는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성화에도 토끼가 등장하는데 코끼리나 기린 등은 한 마리씩 그려져 있는데 반해 토끼는 항상 세 마리 이상 그려져 있다. 그것은 토끼가 풍요로움과 다산多産의 상징임을 뜻함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화가인 베첼리오 티치아노가 그린 성화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한쪽 손으로 하얀 토끼를 붙들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모 마리아의 순결함의 상징과 동시에 동정녀 성모 마리아의 잉태를 하얀 토끼로 표현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교토삼굴狢兔三窟이란 토끼가 세 개의 굴을 판다는 뜻이다. 그 말이 뜻하는 바는 토끼가 앞으로 예기치 못한 재앙에 미리 대비한다는 지혜로움을 의미한다. 우리 인간도 토끼처럼 미리 알아서 만사 튼튼히 했더라면 이태원 참사 같은 일도 예방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처럼 토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인간에게 귀여움을 받는 동물임과 동시에 유구한 세월을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살아온 동물임을 알 수가 있다.

모름지기 토끼해인 새해는 토끼처럼 좀 더 영민하고 지혜롭게 되고자 한다. 비록 몸은 노인이라도 늙어서 못할 일은 없다.

“그분께서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알려 주시고
숨겨진 일들의 자취를 드러내 보이셨다.
어떤 생각도 그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는 말 한마디도 숨길 수 없다,
당신 지혜의 위대한 업적을 질서 있게 정하신 주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같은 분이시다.
어떤 조언자도 필요 없다.
그분의 업적은 모두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는가!”(집회 42,19-22)

나의 인생삼락人生三樂은 글을 읽고, 쓰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낙으로 살까 한다.

제234차 혼성 꾸르실료



교구 234차 혼성 꾸르실료가 1월 5일부터 8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꾸르실료에는 45명이 참석하였다. 차수 담당 사제는 조명래 안드레아 신부, 차수 회장은 김구영 안토니오 그리고 12명의 봉사자가 함께하였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3

피난 교우들은 낙동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경북지방 교우들은 왜관 근처에서 교우촌을 형성했고 이것이 낙산본당 출발이 된다고 했다. 경상도 첫 본당은 왜관 인근에 있던 신나무골본당이다. 로베르(Robert, 김보록) 신부가 초대 본당 신부로 부임하여 경상도 전역을 맡아 활동했다.

그가 본당을 왜관 근처인 신나무골로 정한 것은 그 지역에 교우촌이 많았기 때문이다. 낙산본당은 이 신나무골 본당이 옮겨간 것이다. 당시 낙산에는 낙동강 주변 마을은 물론 멀리 부산까지 왕래하는 선박의 선착장이 있었다고 한다.

거창과 합천지역도 낙동강 주변의 교우촌과 연관이 있다. 거창의 가북면 가조면에는 1890년대부터 공소가 있었고 합천의 대병면, 쌍백면, 삼가면에도 1900년대를 전후해 공소가 있었다. 낙동강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 교우들의 흔적인 것이다. 결국 이 공소들은 거창과 합천본당의 한 뿌리를 형성한다.

교우촌은 언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을까? 신유박해 이전으로 보고 있다. 1790년 북경의 구베아 주교는 조선교회에 사신을 보내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말 것을 명한다. 물론 이 조치는 한순간 내려진 것은 아니다. 80년 가까이 논쟁하며 중국의 선교사들이 반대했지만 교황의 칙서로 명령된 것이다.

북경 주교의 명령은 조선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교우들이 친척은 물론 가족으로부터 따돌림당했고 사사로운 박해를 받기도 했다. 더러는 향촌 마을에서 추방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고향을 떠나 낯선 산간 지방으로 숨어드는 교우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이 교우촌 형성의 출발이다.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함께 살았다. 이런 상황에서 주문모 신부는 1794년 회장제도를 도입한다. 그렇게 해서 조선교회는 회장(공소 회장)을 중심으로 교회 유지와 발전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큰 교우촌도 있었고 작은 교우촌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여 살았다. 조선교회는 처음부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았던 것이다. 조상 제사 금지는 박해의 빌미를 제공했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열렬한 신자들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그러다 신유박해를 당한다. 가족을 잃은 교우들이 합세하면서 교우촌은 더 깊은 산골짜기로 숨어들었다. 그래서 초창기 교우촌은 배티, 살티, 한티 등 높은 산골의 명칭을 갖고 있다.

신유박해는 정치색 짙은 박해다. 정조가 죽자 그의 개혁 정치에 동조하던 세력이 몰락하게 되는데 이들을 몰락시키는 수단으로 신유박해가 이용되었던 것이다. 당시 개혁 세력 가운데는 영남 사람들이 많았다. 흔히 남인계로 알려진 분들인데 교인들이 더러 있었다.

정조 앞의 임금인 영조다. 그는 숙종의 아들로 왕자 때부터 수난이 많았다. 한편 숙종은 죽으면서 경종을 다음 왕으로 선언한다. 경종은 장희빈 아들로 영조와 배다른 형제였다. 그런데 재위 4년에 죽는다. 임금으로 있을 때 몸이 약했던 것이다. 한편 경종이 살아 있을 때부터 영조를 왕으로 앉히려는 세력이 있었다. 사색당파의 노론이다.

경종이 죽자 당시 집권 세력(소론)은 영조와 노론이 합심해 경종을 독살했다고 의심했다. 이후 소론 강경파를 대변하던 이인좌는 역모의 난을 일으킨다. 이인좌의 난이다. 그런데 반란에 영남의 남인계열이 합세했다. 당연히 영조는 대노했고 영남지방에 차별정책을 시도했다.

경남의 낙동강 주변 교우촌은 이 무렵 자리를 잡는다. 특히 남강과 낙동강이 합쳐지는 함안 대산지역엔 피난 교우들이 많이 모였다. 그들이 괘시와 냉대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관의 횡포에 반발하던 민중들의 무관심도 커다란 이유 중 하나였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4

병오박해는 1846년 일어났다. 김대건 신부 체포를 계기로 일어난 박해다. 그의 신분이 드러나자 놀란 조정에서는 신자 색출의 고삐를 죄다. 이런 와중에 프랑스 군함 세척이 제물포항에 나타나 무력시위를 한다. 조선에서 죽은 프랑스인 세 사람에게 대한 해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죽은 프랑스인은 기해박해(1839년) 때 순교한 세 분 성직자였다. 앙베르 주교, 샤스탕 신부, 모방 신부다. 이 사건은 가뜰이나 안 좋던 민심을 더욱 흥흥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강공強攻으로 나왔고 김대건 신부의 처형을 서둘렀던 것이다. 군함 사건은 6월 하순에 있었고 김대건 신부는 9월 16일 한강 백사장에서 순교했다.

병오박해는 프랑스 군함 사건과 맞물려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자들에 대한 감시와 고발은 끊이지 않았고 사사로운 박해는 여전했다. 이렇게 되자 한동안 잠잠하던 피난 교우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조선의 교우는 6,000여 명이었다고 한다.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교우들이었다. 병오박해를 지켜 보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남쪽 지방과 한성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변화였다. 이러한 이동은 병인박해(1866년)가 일어날 때까지 20년간 지속되었다.

병오박해(1846년)에서 병인박해(1866년)까지 20년은 철종 임금 재위 기간과 비슷하다.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다가 급작스레 왕이 된 그는 무능했다. 임금으로 있던 14년(1849~1863)은 안동 김씨 세도정치가 절정을 이루던 시기다. 결과 탐관오리貪官汚吏의 횡포로 백성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신자들의 이동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뜻있는 사람들은 신자들을 받아들였고 교우들은 그들과 합류해 살기도 했다. 마산교구의 교우촌은 이러한 철종 시대에 거의 자리를 잡는다. 대표적인 교우촌 지역은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함양지역, 낙동강 주변 지역, 통영 거제지역, 진주시 일대, 곤양 서포지역 이렇게 다섯이다.

함양지역에 교우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27년 정해박해 이후다. 호남지역 교우들이 넘어왔던 것이다. 전남 곡성에서 시작된 정해박해는 전북으로 옮겨갔고 신자들은 산간벽지로 숨어들면서 진안, 장수, 장계 등에 교우촌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부는 백운산과 덕유산에 넘어 함양, 거창지역까지 갔던 것이다.

기록에 나타나는 함양지역 첫 공소는 리우빌(Liouville, 류달영) 신부가 작성한 1883년 교세 통계표에 나오는 안의 대운암공소와 터골공소다. 리우빌 신부는 1881년부터 전라도 담당 신부로 있었다. 따라서 공소 신자 가운데는 피난 교우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대운암과 터골은 함양군 백전면에 있었다. 이곳엔 전라도와 경상도를 경계 짓는 백운산이 있다. 해발 1279m 꽤 높은 산이다. 피난 교우들은 백운산 주변에 모여 살았고 그들의 권면으로 신자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현재도 이곳엔 함양본당 소속 백운공소와 운산공소가 있다.

한편 1900년 전북 진안군 마령면에 어은동본당이 설립되자 함양지역은 이곳 소속이 된다. 초대 김양홍 신부는 함양지역에 관심이 많았다. 능경이, 섭자리, 마평공소에 대한 기록은 김 신부 재위 시 등장한다. 아마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리우빌 신부의 교세 통계표엔 함양공소가 아니고 안의공소로 나온다. 즉 안의 대운암이다. 왜 그랬을까? 원래 안의는 단독 군郡이었다. 그런데 영조를 반대했던 이인좌의 난亂에 안의 출신 정희량이 가담하자 안의는 군에서 면으로 강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얼마 후 풀리지만 일제 때인 1914년 다시 함양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따라서 선교사 시대의 백운산 일대는 안의 군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기억할 선종 사제
차기병(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1988년 2월 2일

교구/본당

신입, 복학 예정 신학생 신체검사-창원파티마병원
일시: 1월 31일(화) 10:00

신입, 복학 예정 신학생 피정
일시: 1월 31일(화)~2월 1일(수)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장례지도사 교육-1차
일시: 2월 3일(금)~5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신앙대학
일시: 2월 4일(토)~5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청년성서 그룹공부 모집 안내
대상: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년
모집주제: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그룹모임: 지역별 모임과 Zoom(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의: 010·2549·3056(담당 신부)
010·4596·1533(담당 봉사자)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심신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일시: 2월 5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기타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젊은이 모임
일시 및 장소: 전화 면담 후 결정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여성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수강생 모집
내용: 홈토킹!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 영어
문의: 053·593·1273

성모술숯마을 환자를 위한 치유 소피정
치유 소피정: 2월 18일(토)/ 3월 18일(토)/
4월 15일(토)

●성모술숯마을 무료휴양체침
일정: 1주일(2월 18일~23일/ 3월 18일~23일/ 4월 15일~20일)
대상: 환우 및 질환자(우울증 제외)
문의: 010·3209·3955

'2023년' 성모술숯마을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일정: 매월 둘째 주 금~주일 2박 3일
(2월 10일~12일/ 3월 10일~12일/ 4월 7일~9일)
문의: 010·3209·3955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2023년 초·중고 여름신앙학교
일시: 7월 21일(금)~8월 12일(토)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바람
문의: 062·373·094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위치: 창원시 북면 감계/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문의: 010·3551·2038

교구 성령새신봉사회 낮피정

일시: 2월 6일(월) 13:00~17:00
장소: 중앙동성당
강사: 김재덕 베드로 신부
(로마 교황청립 성서
연구원 성서학 전공,
현-대전교구 천안
원성동본당 주임)
주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하겠습니다.
(사도 6,4)



함안안나의집 입소 안내(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대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1~4등급 자 노인 중 시설급
여 대상자(3, 4등급 자는 불가피한 사유나 치매 등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주소: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번지(대산성당 내)
문의: 055·582·0252, 010·2674·6174(정 세레나)

**파랑포안나의집(장기요양시설)에서
입소어르신을 모집합니다.**
대상: 장기요양 1~3시설등급(여자어르신)
주소: 거제시 팔랑포2길52(옥포동)
문의: 055·687·4890, 010·8526·6079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월 30일(월) 19:00	중앙동성당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채창락 요셉 신부(대구대교구)		010·5072·5612
진주지구	1월 30일(월) 19:30	신안동성당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	임해원 안토니오 신부		010·3846·1980
청년	매주(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월 5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마산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
마산 성바오로서원은 새 교구청으로
이전한 후에도 현재 교구청 자리에서
계속 운영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10-9753-308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우리농
생명공동체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15

강선화 율리아나(월남동본당)

며칠 전 남편이 “성당에 뭐 도장 찍으러 가야 된다며? 토요일 가자”라는 말에 속으로 ‘아싸!’ 하고 부르짖었다. 사실 남편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그래도 전국 성지순례 때에나 공소 순례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함께해 주니 이 또한 얼마나 이쁜 천사인가? 첫날 순례 때처럼 길을 헤맬까 싶어 이번에는 책자를 보며 시간을 체크하는데 남편이 남해 쪽 공소를 시작으로 해서 가잔다.



미조공소

미조공소 가는 길이 약간 꾸불꾸불했지만 차창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상큼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 보니 우측에 유자가 노랗게 달려있다. 어느새 남편이 유자 두 개를 가져왔다. 고개 숙이며 은점공소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순례자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 주었던 영신공소 교우분께 감사드린다.

북천공소는 표지판이 없어 찾기가 힘들었다. 결국 지나가던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공소를 지척에 두고 세 바퀴나 돌고서 겨우 찾았다. 이제 살짝 배도 고프기도 하고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내어 삼장공소로 향했다. 안내는 새로운 길을 알려 주지만 무시하고 나무 안내판을 따라가니 주위가 온통 숲에 둘러싸여 마치 숲속 성에서 기다리는 주님께 초대받아 가는 기분이 들었다. 세상일은 관심 없이 주님만을 찾았을 신앙 선조들과 어우

려져 참 자유롭고 평화로웠다. 동화에 나오는 숲속의 성인 공소를 뒤로하고 옥종공소를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참 반가운 사진이 있다.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님이시다. 잠시 목례와 화살기도를 바치고 나니 보고 싶었다. “주교님 우아던지 건강하이소” 인사를 전하였다. 덕산공소에서는 자매님들이 남편을 향해 “외인인데 순례때마다 함께하고, 대단하십니다.” “함께 성당에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멧쩍은 듯 웃는다. 진주지역 26곳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공소 신자 분들의 가정에 주님 사랑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16

황정남 임마누엘라(구암동본당)

레지오 단원들과 함께 26곳의 공소를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어떤 공소는 시골의 넉넉하고 푸근함에 나이가 들면 이런 곳에서 하느님을 믿으며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공소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온 선조들의 열정이 지금 우리 세대가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증거하고 지켜왔는지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으며, 나태해진 제 신앙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울적했고 힘든 시기였는데, 공소 순례를 통해 단원들과 더 큰 형제애를 나눌 수 있었으며, 답답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미사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삶을 주님 안에서 찬양도 하고 생활에 기쁨을 충전했는데 3년 가까이 제대로 성가를 부를 수 없어서 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예순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도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게 사느라,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든 은행잎은 예쁘다는 생각을 했지만, 도로 건너편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단풍이 예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소 순례를 통해 하느님께서 가을 소풍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로움을 주셨습니다. 순례 기간 동안 기대와 설렘으로 제 마음은 너무 기뻛고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라 여겨집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교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원공소



판관 오트니엘(판관기 3,7-11)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이번 순례지는 판관 오트니엘이 머무는 곳입니다. 판관기의 저자는 오트니엘이 살았던 곳의 지명을 알려 주지 않지만 여호 15,15-17에 의하면 칼렙의 아우인 크나즈의 아들 오트니엘은 유다 남부에 있는 드비르라는 곳에 정착하였습니다.

판관 오트니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판관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관기에 소개되는 판관들은 대판관과 소판관으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의 기준은 판관을 소개하는 이야기의 분량입니다. 따라서 대판관이 소판관보다 더 훌륭하거나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판관으로 분류되는 여섯 판관은 오트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타, 삼손이고, 소판관으로 분류되는 여섯 판관은 삼가르, 톨라, 야이르, 입찬, 엘론, 압도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대판관들의 이야기만 살펴볼 것입니다. 판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역시 이 책에서 제법 길게 소개되지만 그는 하느님께서 뽑아 세운 판관이 아니라 스스로 임금이 되려 한 인물이기 때문에 대판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판관은 쇼팻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스리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판관들의 주된 기능은 재판관이라기보다는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판관들 가운데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약하였던 인물은 오트니엘과 에훗, 기드온, 입타를 들 수 있고, 삼가르와 삼손은 군사 지도자이기보다는 홀로 활동한 전사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해결하도록 선발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들이었지만 반드시 덕행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쫓겨나 도적 떼의 대장이 되었던 인물였고, 삼손은 힘은 장사였지만 결코 모범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군사적인 위기가 해결되면 나머지 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소송을 해결하는 일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판관인 드보라는 야자나무 아래에 앉아서 백성들의 소송을 해결해 주었고, 사무엘 역시 여러 지역을 돌며 순회 판관직을 수행하였습니다. 판관들 가운데는 예언자로 활동한 이들도 있는데, 드보라와 사무엘이 그러하였습니다. 한편, 삼손과 사무엘은 평생 나지르인이었습니다. 사무엘기에 소개되는 엘리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판관이자 사제였습니다.

오트니엘은 판관기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판관인 만큼 그의 이야기는 죄-벌-울부짖음-구원이라는 판관기의 신학적인 도식에 맞추어 서술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악행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을 저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입니다. 신명기는 한 분 하느님만을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신명기에 역사가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이에 하느님께서 진노하시어 이스라엘을 아람 나하라임의 임금 쿠산 리스아타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당시에는 갓 형성된 도시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며 힘겨루기를 하던 시절이었기에 자주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신명기에 역사가는 이런 군사적인 충돌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로 해석합니다. 아람 나하라임은 시리아 북쪽 유프라테스강 상류와 티그리스강 상류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며, 이곳의 임금 쿠산 리스아타임은 ‘못 돼먹은 어둠의 자식’이란 뜻으로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비아냥거리며 부르는 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못된 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8년 동안이나 지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울부짖자 하느님께서 오트니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그는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가 죽을 때까지 4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행복한 결말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